

## 업종별 이슈로 차별화 속 상승폭 확대 무늬신, “추가 부양 법안 지지하고 7월 말 승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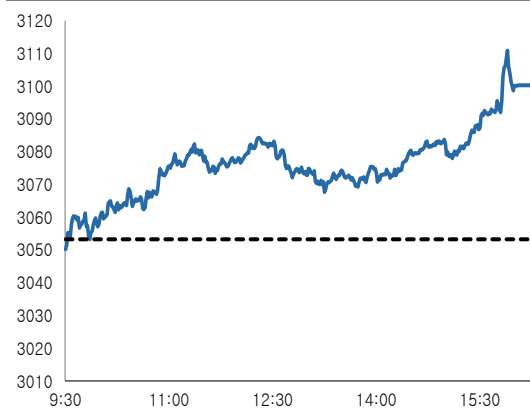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지표 호전, 무늬신 발언, 윈도우드레싱

미 증시는 홍콩 보안법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지표 개선에 기대 상승 전환. 여기에 파우치 소장이 내년 초에 효과적인 백신이 출시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무늬신 재무장관이 추가 부양정책 지지와 7월 말 승인을 언급한 점, 그리고 윈도우드레싱도 상승 확대 요인. 다만, 파월 등 연준위원들의 경기 불확실성 언급으로 한때 상승 일부 반납하는 등 변화를 준 가운데 업종 차별화가 특징(다우 +0.85%, 나스닥 +1.87%, S&P500 +1.54%, 러셀 2000 +1.42%)

미 증시 변화는 ①파월과 무늬신 발언 ②업종, 종목 이슈가 영향. 홍콩 보안법으로 인한 미-중 마찰 우려가 부각되었으나 무늬신 미 재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 할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완화. 더불어 추가적인 부양 법안을 지지하고 7월말에 승인 될 것이라는 주장도 긍정적. 반면,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 2 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언급을 지속하자 일부 매물 출회. 특히 파월은 긴급 대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점이 부담. 더불어 미국 경제 재개 중단한 주 정부가 16개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 우려도 지속되었으나 영향은 제한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시장 변화를 이끌었으며 특히 업종 차별화에 영향. 보잉(-5.75%)의 경우 노르웨이 항공이 100대의 비행기 주문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자 하락. 관련주도 부진. 마이크론(+4.83%)은 양호한 실적과 예상을 상회한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70%) 상승을 이끔. 여기에 테슬라(+6.98%)는 머스크가 이번 주 2분기 차량 판매량 발표를 앞두고 이메일을 통해 견고함을 언급하자 급등 했으며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이끔. 한편, 길리어드사이언스(+3.19%)를 비롯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 바이오 업종은 파우치 소장이 2021년 초에 효과적인 백신이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상승. 금융주는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배당 유지를 언급하자 강세. 이러한 업종 차별화로 다우 보다는 나스닥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차별화를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08.33	+0.71	홍콩항셱	24,427.19	+0.52
KOSDAQ		737.97	+0.45	영국	6,169.74	-0.90
DOW		25,812.88	+0.85	독일	12,310.93	+0.64
NASDAQ		10,058.77	+1.87	프랑스	4,935.99	-0.19
S&P 500		3,100.29	+1.54	스페인	7,231.40	-0.64
상하이종합		2,984.67	+0.78	그리스	638.90	+0.48
일본		22,288.14	+1.33	이탈리아	19,375.52	-0.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바이오 강세 Vs. 코로나 피해 업종 부진

마이크론(+4.83%)은 예상치인 55억 달러를 상회한 57.5~62.5억 달러의 영업이익 가이드스 발표로 급등했다. 자일링스(+6.99%)도 데이터 센터향 매출 증가로 가이드스를 상향 조정하고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한이 완화된 데 힘입어 이익 개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이 영향으로 NVIDIA(+3.24%), AMD(+4.63%), 인텔(+2.68%) 등이 동반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0% 상승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3.19%), 모더나(+3.43%) 등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종목의 경우 파우치 소장이 내년 초에 효과적인 백신이 출시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발표를 하자 상승했다.

테슬라(+6.98%)는 이번 주 2분기 판매량 발표를 앞두고 머스크가 양호한 결과를 시사하자 급등했다. 다만 앨버말 코퍼(+1.15%) 등이 포함된 글로벌 리튬 배터리 ETF(LIT: +0.95%)의 경우 그동안 상승으로 그 폭은 제한 되었다. 아마존(+2.93%), 넷플릭스(+1.74%) 등과 부킹닷컴(-0.06%)을 비롯한 매리어트(-1.00%) 등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차별화를 보였다. JP모건(+1.14%) 등 금융주는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배당 유지 발표로 강세를 보였으나 웰스파고(-0.39%)는 배당 축소로 부진했다. 보잉(-5.75%)은 노르웨이 항공이 100대의 비행기 구매를 취소하자 급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76%	대형 가치주 ETF(IVE)	+1.16%
에너지섹터 ETF(OIH)	+2.44%	중형 가치주 ETF(IWS)	+1.23%
소매업체 ETF(XRT)	+0.40%	소형 가치주 ETF(IWN)	+1.20%
금융섹터 ETF(XLF)	+1.40%	대형 성장주 ETF(VUG)	+1.87%
기술섹터 ETF(XLK)	+1.79%	중형 성장주 ETF(IWP)	+1.7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0%	소형 성장주 ETF(IWO)	+1.55%
인터넷업체 ETF(FDN)	+1.79%	배당주 ETF(DVY)	+1.12%
리츠업체 ETF(XLRE)	+1.46%	신흥국 고배당 ETF(DEM)	-1.18%
주택건설업체 ETF(XHB)	+1.5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6%
바이오섹터 ETF(IBB)	+1.49%	미국 국채 ETF(IEF)	-0.18%
헬스케어 ETF(XLV)	+1.71%	하이일드 ETF(JNK)	+1.03%
곡물 ETF(DBA)	+1.16%	물가연동채 ETF(TIP)	-0.16%
반도체 ETF(SMH)	+2.43%	Long/short ETF(BTAL)	+0.5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7.46	+2.20%	-3.70%	-5.56%
소재	354.83	+1.43%	+0.21%	-0.46%
산업재	581.00	+0.65%	-0.51%	+0.41%
경기소비재	1,051.42	+1.73%	-1.02%	+3.30%
필수소비재	601.33	+0.81%	-0.37%	-1.54%
헬스케어	1,167.80	+1.81%	-0.26%	-2.14%
금융	385.49	+1.56%	-2.76%	-2.46%
IT	1,840.10	+1.92%	-0.06%	+6.06%
커뮤니케이션	179.88	+1.32%	-3.11%	-1.83%
유틸리티	286.96	+0.41%	-0.95%	-6.56%
부동산	216.39	+1.59%	-0.18%	-1.7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실적 중심의 시장으로의 전환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4% MSCI 신흥국 지수 ETF 도 0.32%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9.3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2 분기 20.2% 급등했다. 코스닥도 29.7% 강세를 보이는 등 양호했다. 특히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정점(4 월 중순) 이후 경제 재개에 기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5 월 중순 이후 그동안 상승을 주도하던 언택트 관련 종목군이 매물이 출회 되기도 했고 6 월 초 주요 경제지표 개선에 기대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 때 2,200pt 를 상회하기도 했다. 이런 도중 6 월 FOMC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은 유동성 보다는 펀더멘탈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결과 부진한 실적 등을 이유로 매물이 출회되는 등 상승이 제한되었다. 물론 미국의 코로나 재 확산으로 인한 경제 섯다운 우려도 영향을 줬으나 이 또한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부담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2 분기 마지막 날 실적 호전과 가이드언스를 상향 조정한 기업들, 즉 반도체, 테슬라 등과 배당을 유지하는 금융주 위주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 물론 비행기 구매 취소 등을 기반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된 보잉을 비롯해 뉴욕의 여행자 격리, EU 의 미국발 여행객 유입 금지 등으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여행 관련 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결국 7 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펀더멘탈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 또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비 심리 지표 큰 폭 개선

6 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85.9)이나 예상(90.0)을 크게 상회한 98.1 로 발표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여건(68.4→86.6), 기대지수(97.6→106.0) 등 모두 양호했다. 고용 중심의 질문이 많은 서베이 결과라는 점을 감안 고용 개선에 기댄 결과로 볼 수 있다.

6 월 시카고 PMI 는 전월(32.3) 보다 양호한 36.6 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44.5)을 하회했다. 보잉과 관련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 산업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유가 하락 Vs. 국채 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불구 코로나 재 확산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했다. 특히 파우치 소장이 청문회에서 하루 10 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 우려를 더욱 키웠다. 여기에 OPEC 과 러시아가 8 월부터 감산량을 축소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공급 증가 우려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양호한 소비 심리 지표 결과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월말, 분기말, 반기말 리밸런싱 흐름이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로 전환했다. 한편, 주식시장이 상승폭을 확대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일부 완화된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경제 재개 중단 주 정부가 16 개로 늘어나는 등 관련 이슈가 지속되자 약세폭은 제한 되었다. 대체로 오늘 달러화의 흐름은 새로운 이슈 보다는 리밸런싱이라는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국채금리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자 상승했다. 여기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 법안을 지지하고, 7 월 말에 이 정책의 승인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다만,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이 경기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미국의 코로나 확산과 경제 재개 중단 주 정부의 증가 등은 상승을 제한한 요인이다.

금은 달러 약세 및 코로나 재 확산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와 코로나 재 확산으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9.27	-1.08	-2.72	Dollar Index	97.399	-0.14	+0.78
브렌트유	41.27	-1.39	-3.42	EUR/USD	1.1234	-0.07	-0.65
금	1,800.50	+1.08	+1.04	USD/JPY	107.96	+0.35	+1.35
은	18.637	+3.17	+2.18	GBP/USD	1.2393	+0.77	-1.01
알루미늄	1,619.50	+0.65	+1.54	USD/CHF	0.9475	-0.39	+0.28
전기동	6,015.00	+0.90	+1.86	AUD/USD	0.6902	+0.52	-0.40
아연	2,047.50	-0.68	+0.37	USD/CAD	1.3574	-0.62	+0.18
옥수수	341.50	+3.88	+3.80	USD/BRL	5.4629	+1.07	+5.99
밀	491.75	+1.08	+0.15	USD/CNH	7.0706	-0.08	+0.14
대두	882.25	+2.41	+0.94	USD/KRW	1203.00	+0.37	-0.48
커피	101.00	+0.90	+2.85	USD/KRW NDF1M	1199.30	-0.02	-0.7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53	+2.94	-5.90	스페인	0.464	-0.20	-0.80
한국	1.385	+2.80	+1.00	포르투갈	0.471	+0.20	-0.70
일본	0.028	+1.00	+1.40	그리스	1.200	-5.10	-8.10
독일	-0.454	+1.60	-4.60	이탈리아	1.256	-3.90	+0.20